

2026년 4월 1일 수요일

고난주간

시편: 62장

후렴: (내 영혼아 고이 쉬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오직 주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않으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시니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나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항상 주를 의지하고 너희 마음 열어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러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 하나 하시면 나는 둘로 들었으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영혼아 고이 쉬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경말씀: 시편 56 장 10~13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중보기도:

학교, 학원 등 각종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으로 바른 교육을 하게 하시고, 배움을 받는 많은 학생이
전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학교 내에 폭력, 집단 따돌림 등 나쁜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진정 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서 다 버리고, 빈 마음이 되고, 참사랑이신 주님만 갖고자 합니다.

오, 주님만이 제 소유요, 제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때만이 제 영혼이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사랑은 분노를 누르며, 침묵하고, 격함이 없이 말하며, 고즈러기 울며,
탄식없이 괴로워하며, 눈물의 그늘 밑에 피는 미소이며,
사랑은 요구(要求)함이 없이 주기만 하며,
항거함이 없이 고난을 받으며, 망설이지 않고 사죄하며,
오직 스스로의 나약을 슬퍼합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4월 2일 목요일

고난주간-세족목요일

시편: 72장 1~8절

후렴: (주는 살아 계시고 그를 찬미하는 소리 그치지 않으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다스리게 하소서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주께서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에 내리는 비 같이 내리며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게 하소서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주께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다스리고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시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살아 계시고 그를 찬미하는 소리 그치지 않으리다)

성경말씀: 고린도후서 5 장 13~17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보기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지켜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섭리의 인도를 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어 진리의 빛을 비춰주소서.
그리스도는 사랑, 생명이니, 항상 믿음으로 묻고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모든 생명,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알아 선을 행하게 하소서.

(성금란)

오늘의 묵상 글:

참 목자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니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가면,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은 방초동산과 맑은 시내가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부디 이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호를 빌면서.

2026년 4월 3일 금요일

고난주간-성금요일

시편: 116장

후렴: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 채워드리리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주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주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고통이 하도 심할 때에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갹이리로다
귀하도다 주의 눈에 성도들의 죽음이여
주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주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내가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갹을찌라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주의 궁전 안뜰에서,
내가 갹이리로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 채워드리리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16 장 24~27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증보기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한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물질만능주의에 몰두하기보다 영적인 생활에 더 관심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의 은혜로 주신 기회를 회피하는 이 자식이옵니다.

환난의 기회만 있으면 회피하였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환난을 도리어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36. 가난한 행복

하느님의 가난은

모든 것을 가진 행복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온전히 비워냄으로

무한의 하느님을 소유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일입니다.

하느님 가난을 사랑하는 이의 마음에는

영적 평화가 실현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김준호 글 재편집)

2026년 4월 4일 토요일

고난주간-성토요일

시편: 119장 105~112절

후렴: (주의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이 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나이다
내가 맹세하고 실천하려하나니
주의 의로운 법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여, 구하오니 내 입의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험에 놓여 있으니
주의 법은 잊지 않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니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았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유산을 삼았으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이 되나이다)

성경말씀: 로마서 6 장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중보기도:

국가 경영에 책임 맡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올바르게 깨닫고, 국민을 섬기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혼의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실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니,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종들이 되어야 하며

(그분께서 알려주신 말씀, 김준호)

2026년 4월 5일 일요일

부활절

시편: 110장

후렴: (내 주는 멜기세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나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가운데서 왕권을 행사하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셨으니 다시는 뒤우치지 않으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께서 네 오른편에 계시니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부수시리라
그는 길을 가다가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런 다음 머리를 쳐드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주는 멜기세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나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28 장 5~10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컫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중보기도:

목회자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제게 주어진 환경은

순경이나 역경이나 다 제 영혼을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될 것을 믿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뜻을 어기고 천리를 달리는 것보다 뜻을 보여 주시기까지 고요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봉사입니다.

자기의 뜻과 소행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4월 6일 월요일

부활절 1주

시편: 123장

후렴: (우리의 눈이 주 하나님을 우러러 주의 자비를 바라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바람 같이,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 같이 바라나이다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열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로 우리를 업신여기며

교만한 자의 열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우리의 눈이 주 하나님을 우러러 주의 자비를 바라나이다)

성경말씀: 고린도후서 1 장 8~11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중보기도:

사랑이신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에 복을 내리시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과도 사랑을 나누며 즐거이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에 자비로 사랑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에도 달게 희생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침묵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인격은 첫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책임을 잘 느끼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책임을 느끼자 않는 이는 인격 수양이 안 되어 짐승과 방불합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일으키는 것을 잘 살피서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인격을 갖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26년 4월 7일 화요일

부활절 1주

시편: 125장

후렴: (주께서 그 백성을 항상 감사 주신다)

주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 같으니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주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주여, 착한 이들과 마음이 정직한 이들에게 선을 행하소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찌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그 백성을 항상 감사 주신다)

성경말씀: 다니엘 7 장 13~14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중보기도: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진리의 빛을 주시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피조물과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몸소 느끼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주님의 산 말씀에서만 삽니다.
말씀을 붙어 넣으소서.
제 속에 말씀을 붙어 넣어 주소서.
산 말씀으로 살게 해 주소서.
산 말씀에서 힘을 얻도록 해 주소서.
산 말씀이 저를 굳세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54. 소화(小花) (1)

소화, 작은 꽃이여!

'너 비록 작을지라도

나, 너를 속속들이 너를 알게 되는 그날

우주의 섭리와 그를 창조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리라'

(김준호 글 재편집)

2026년 4월 8일 수요일 부활절 1주

시편: 126장

후렴: (눈물을 흘리며 들에 씨 뿌리는 자들은 기뻐하며 거두어들이리라)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과 같았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쳤나이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눈물을 흘리며 들에 씨 뿌리는 자들은 기뻐하며 거두어들이리라)

성경말씀: 시편 143 장 5~6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중보기도:

노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걸 사람은 늙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 권위를
갖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제 허물 깨닫고, 남의 허물 상관 말고,
스스로 겸비하고 사람들 실수를 관대히 보게 해 주소서.
아버지 앞에 자복케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믿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참 인격을 본받는 일입니다.

인격이란 사람된 자격이란 뜻입니다.

사람마다 인격을 가졌으나 낮고 천한 인격입니다.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밖에 없습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4월 9일 목요일

부활절 1주

시편: 132장 1~10절

후렴: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어 주의 거처 삼고자 하셨나이다)

주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주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원하시면서
다윗은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않으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않으리다
눈 붙이고 잠을 잘 수 없고
선잠조차 허락하지 않았나이다

주의 처소를 마련하기까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보았나이다

우리가 주께서 계시는 성막에 들어가자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자
주여, 주의 권능의 귀와 함께 일어나소서
주의 안식처로 들어 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찌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어 주의 거처 삼고자 하셨나이다)

성경말씀: 갈라디아서 4 장 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중보기도:

교회마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도들 각자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평화의 왕이시여,
성스러운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고통의 핏방울이
제 가슴속에 젖어들 때만 제 영혼이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 안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치를 정해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경험을 주십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님의 활동은 기지를 잃어버림 같고, 성령이 없는 십자가는 죽은 것입니다(요한복음 3장 8절).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부활절 1주

시편: 135장 1~12절

후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주여, 시온에서 드리는 찬미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주의 종들아 찬송하라

주의 집에서 예배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자들아

주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주를 찬송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주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도다

주께서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치셨으니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주께서 너의 중에 징조와 기적을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주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라

그들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며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주여, 시온에서 드리는 찬미 받으소서)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 장 4~9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중보기도:

모든 정치인이 정의와 참 지혜를 알고 올바른 일에 더 관심과 실천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나라와 모든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뜻을 계시하시는 성령이여,
미리 아시는 하느님이여!
저와 동행하여 주소서.
앞으로 남은 때를 주님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일의 뒷처리를 주님께서 친히 홀로 하시기 바라나이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마음이 정결해지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가장 깨끗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신비가 일어납니다.
극적인 은총이 임합니다.
가난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난해지는 것이고,
깨끗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자기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주님 없이 혼자 깨끗해지려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더 부정해집니다.

(그분께서 알려주신 말씀, 김준호)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부활절 1주

시편: 113장

후렴: (온 누리가 주의 얼굴을 그리워 하도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아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데까지,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주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네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여,

자녀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온 누리가 주의 얼굴을 그리워 하도다)

성경말씀: 에베소서 1 장 17~1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중보기도:

삶과 평안의 보금자리인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 내며, 삶의 모범으로 이웃과 세상을 변화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이나 제 것은 없애고 그리스도를 얻어야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오니

저도 주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선 당신을 버리고 저를 붙잡으셨으니,

저도 저를 버리게 하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주여! 다시 생각하여 주옵소서.

새 것 만드소서.

주님의 것 만드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만드소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하게 만드소서.

소원하옵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떠나기 소원하옵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4월 12일 일요일

부활절 2주

시편: 110장

후렴: (내 주는 멜기세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나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가운데서 왕권을 행사하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셨으니 다시는 뒤우치지 않으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께서 네 오른편에 계시니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부수시리라
그는 길을 가다가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런 다음 머리를 쳐드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주는 멜기세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나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20 장 26~29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중보기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며 책망하시는 내적인 역사에 성도들이 순간순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예 전심으로 힘쓰며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 실천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 속에

이 몸도 훨훨 타서 먼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은 울타리도 없고, 국경도 없고,

사랑의 평화가 있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성모님이 몸속에 예수님을 잉태하듯이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잉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감싸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 속에 오십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분께서 알려주신 말씀, 김준호)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부활절 2주

시편: 136장 1~10절

후렴: (주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성경말씀: 히브리서 10 장 19~25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꿀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품속에 숨을 때만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복종하는 길은 행복스러운 이들이 택한 길이란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마음에 불만을 품거나 불평을 하지 말고 어린양과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몸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부활절 2주

시편: 137장

후렴: (내가 어찌 예루살렘을 잊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젖노라
언덕의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다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 욱박하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노래 부르라 조르네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찌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않거나
내가 가장 큰 기쁨을 그곳에 두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찌로다
주여, 에돔을 거슬러 예루살렘의 그 날을 회상하소서

그들 말이 훼파하라 훼파하라 그 기초까지 훼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가 어찌 예루살렘을 잊을 수 있으리까)

성경말씀: 마가복음 12 장 29~3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중보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이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뜻을 따라 복음전파 사역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주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죄를 질 때는 두려운 아버지이지만,

회개하는 아들에게는 피눈물을 같이 흘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해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사람이 한 번 죽고 그 후에 심판받는 것이 정칙입니다.
주님이 심판자이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밝혀서 증거해야만 하겠습니까(히브리서 9장 27절).
죽는 것을 두려워 말고 심판을 두려워할 것입니다(히브리서 10장 26~31절).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부활절 2주

시편: 139장 1~12절

후렴: (주여, 나를 살펴보시어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주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찌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찌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찌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찌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취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나를 살펴보시어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4 장 7~11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중보기도: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살피며 모든
이에게 이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올바르게 실현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의식주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십시오.
참으로 예수님을 거짓말이 없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우리가 가는 길은 하심下心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성경에서는 겸손과 가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난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가난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알려주신 말씀, 김준호)

2026년 4월 16일 목요일

부활절 2주

시편: 144장 1~9절

후렴: (주여, 당신께 비는 이 그 누구에게나 주님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나의 반석이신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데도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라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주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흠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당신께 비는 이 그 누구에게나 주님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성경말씀: 디모데후서 4 장 7~8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중보기도:

인도자이신 주님, 가정 또는 사회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로하시고 살피 주시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결론은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예수님께서서는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참 양식이란 예수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부활절 2주

시편: 119장 73~80절

후렴: (주의 자애가 나를 위로하게 하소서)

주의 두 손으로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나로 깨닫게 하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라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았으니라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 되나니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여 나로 살게 하소서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로 수치를 당케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목상하리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법을 알리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자애가 나를 위로하게 하소서)

성경말씀: 요한복음 13 장 34~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중보기도:

자비하신 주님, 사회의 불평등 속에서 소외되고 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굽어보소서. 그들이 고단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공동선이 실현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결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은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요한복음 14장 1절) 이것은 그 시간에 드러나는 말은 아닙니다.
앞일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둔하니까 평생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알려주신 말씀, 김준호)

2026년 4월 18일 토요일

부활절 2주

시편: 122장

후렴: (사람들이 주의 집으로 가자 할 제 나는 몹시 기뻐했도다)

사람들이 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몹시 기뻐하였노라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서 있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주의 지파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려하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찌어다

내가 내 형제와 봉우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찌어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사람들이 주의 집으로 가자 할 제 나는 몹시 기뻐했도다)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5 장 12~15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증보기도:

희망이신 주님,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부활의 빛이 그들 가슴을 비추어주소서.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은 단지 지나가는 한순간임을 깨달아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용기를 얻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각각 자기들의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첫 계시입니다.

이 길만이 개인이나 모임이나 모든 인류의 평화의 길입니다.

이 겸손의 덕이 매일매일 제 삶 속에 스며들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예수는 나의 친구임을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이십니다.

세상이 나를 못 이해하고 배격해도 또 사실로 악하고 나쁜 저일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모른 채 않으시는 유일(唯一)한 친구이십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4월 19일 일요일

부활절 3주

시편: 114장

후렴: (주는 바위가 샘이 되게 하시고 바위에서 샘솟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주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거슬러 물러갔나니라
산들은 수양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찜이며
요단야 네가 물러감은 어찜인고
너희 산들아 수양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뛰놀은 어찜인고

땅이여 소스라쳐라 주의 면전에서
야곱의 하나님 그 면전에서
주께서 반석을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솟게 하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바위가 샘이 되게 하시고 바위에서 샘솟게 하셨도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24 장 13~16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중보기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도와주소서. 온갖 조롱과 수모를 이겨 내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헤쳐 나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수도자라는 것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제물로 골라온 사람들인데, 그것은 하느님의 특은입니다. 수도자는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느님의 화를 제게 내려주십시오." 하며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성소聖召을 받은 것입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2026년 4월 20일 월요일

부활절 3주

시편: 15장

후렴: (주여, 거룩한 산에 머무를 자 그 누구이리까)

주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속에 진실을 품은 사람이나이다

그 혀로 참소하거나 그 벗에게 행악지 않으며
그 이웃을 훼방치 않는 사람이나이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나이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찌라도 변치 않으며
높은 이자로 돈놀이 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자로다
또한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요동치 않으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거룩한 산에 머무를 자 그 누구이리까)

성경말씀: 잠언 3 장 5~7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중보기도:

핵가족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소외되는 젊은이 또는 장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족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세대 간의 이해 폭이 넓어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게 걱정이 있고 번뇌가 있다는 것은 다 불신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번민이 있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모두 제 탓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오! 주님, 사람의 마음은 하느님 아버지 몸속에서 떨어져 나온 자리가 아닙니까.

주님, 제 영혼은 주님의 심장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입니다.

그러기에 제 영혼은 주님 품속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만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부활절 3주

시편: 119장 97~104절

후렴: (주의 말씀은 제 입에 꿀보다도 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내가 주의 법을 묵상하기 때문이니다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현명하니
주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니다

온갖 악한 길에서 제 발길을 돌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함이니다
내가 주의 법규에서 어긋나지 않으니
주께서 나를 가르치신 까닭이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말씀은 제 입에 꿀보다도 답니다)

성경말씀: 출애굽기 4 장 10~17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중보기도:

지역과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 안에 있는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여, 받으소서.

저와 사람과 물질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내가 나를 어쩔까도, 내가 남을 어쩔까도, 내가 물질을 어쩔까도,
다 주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의 힘, 영성(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만으로 모르니 성령 곧,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람의 목적을 모릅니다.

다른 생물보다도 오히려 악할 수도 있고 더 악할 수도 있는데, 이는 영성이 어두워진 까닭입니다.

영성이 어두워져서 다른 생물만큼도 행복스럽지 못합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부활절 3주

시편: 27장 7~14절

후렴: (생명의 땅에서 주의 복을 나는 누리리라 믿나이다)

주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바로 주를 생각하나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고 있나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어,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주는 나를 받아 주시나이다

주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때문에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있으니
주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오직 주만 바랄찌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주를 바랄찌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생명의 땅에서 주의 복을 나는 누리리라 믿나이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8 장 19~21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중보기도:

인자하신 주님, 온갖 불의와 혼란이 기승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지켜주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의 지킴이로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맡겨진 복음을 충실히 실천하고 전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회개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사랑의 보혈에 항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고, 예수님같이 다시 나게 하소서.

그 뜨거운 은총의 사랑으로 성화되는 전 인격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같이 되는 것이 소원이나이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어떤 것이 마귀입니까?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끌려서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부활절 3주

시편: 32장

후렴: (주를 바라는 이에게는 사랑으로 감싸주신다)

허물의 사함을 얻는 자 복이 있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속임수가 없고
주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하였더니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녹아났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리라고
이처럼 주께 내 죄를 아뢰었나이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 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찌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찌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에우시리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하지 말며
분별없는 노새 같이 되지 말찌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리로다

약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사랑이 넘치도다
너희 의인들아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 하리로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찌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를 바라는 이에게는 사랑으로 감싸주신다)

성경말씀: 시편 37 장 39~40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중보기도:

위로자이신 주님,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를 굽어살피소서. 소외된 이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도 주위의 소외된 이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일에 주님의 심장으로 하게 하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일을 처리할 때
땅 위에서 평안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든
"아들아, 내가 함께 하리니 앞 일에 겁을 내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해가 달을 비추기 때문에 달에 빛이 있는 것이지, 달 자체는 빛이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달이고 고깃덩어리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햇빛을 반사해서 빛이 나는 것이고, 빛이 나는 것은 은총의 결과입니다.
하느님이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시고 빛을 비취 주었기 때문이지 빛이 떠나면 다시 죄악 덩어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입니다. 그것이 실체입니다.
빛이 비쳐 반사하는 회광반조回光返照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비치는 동안입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부활절 3주

시편: 46장

후렴: (너희는 침묵하여 내가 하나님인줄 알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설령 땅이 뒤흔들리고 산들이 깊은 바다에 빠져든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매 성이 요동치 않으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환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주께서 소리를 발하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주의 행적을 불찌어다
땅에서 이룩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주께서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리니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찌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너희는 침묵하여 내가 하나님인줄 알라)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4 장 7~11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중보기도: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과 인내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증거를 보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오로지 자기 부정 속에 참 안식에 들어갑니다.
영혼의 참된 기쁨은 형제 자매의 잘못을 자기가 범한 것임을 깨닫고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죽어질 때만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오, 심오하신 사랑이여! 우주의 공간에 길 잃은 별들을 흔적도 없이 깨끗이 하는 천리天理가 있어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광대한 가슴 속에는 길 잃은 영혼들을 받아 안아 주시는 사랑의 심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의 가슴속에 빨려 들어 가기만 하면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깨끗해지는 심오한 은총이 있음을 믿고 저는
안심이 됩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부활절 3주

시편: 142장

후렴: (이 몸이 피할 곳은 오직 주시니 생명의 나라에서 나의 몫이십니다)

내가 소리 내어 주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주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 줄 사람이 없나이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명의 나라에서 나의 분깃이시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오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오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 몸이 피할 곳은 오직 주시니 생명의 나라에서 나의 몫이십니다)

성경말씀: 마가복음 16 장 15~18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중보기도:

공정하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비리와 부정의 유혹을 떨쳐내고 언제나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열어 보이시려고 택하신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의 자비의 사랑, 그 은총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 은총, 그 사랑, 그 자애를 넣어 주시려고

골라낸 그릇 밖에는 부어줄 그릇이 없습니다.

주인이 쓰려고 골라온 그릇은 크거나 작거나 잘 생기거나 못 생기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택한 그릇은 잠잠히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피는 붉지요. 그러나 죄가 아무리 크고 또 빨갳다 해도 예수님께서 네 죄를 용서했다 하시면 눈같이 희어집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2026년 4월 26일 일요일

부활절 4주

시편: 115장

후렴: (이스라엘아 주를 신뢰하여라 주는 도움이시며 방패이시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의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을 영광되게 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을 놔두십니까
그들 하나님은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나이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같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주를 경외하는 너희는 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주를 경외하는 자 모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주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주로부터 복을 받으리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께
하늘은 주의 하늘이며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네

죽은 자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스라엘아 주를 신뢰하여라 주는 도움이시며 방패이시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10 장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중보기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깊은 깨달음으로 영적인 안목이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사랑하게 해 주소서.

주님 기쁘게 해 드리고 슬프시지 않게 되기를 비나이다.

이 땅에 참 사람을 보내주소서.

마음 너그럽고 깨끗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영혼의 참된 안식은 오로지 자기부정 함으로써 찾아드립니다.

영혼의 참된 기쁨은 형제자매의 실덕失德을 나의 몸과 나의 영으로 범한 것으로 깨닫고 그 책임을 나의 것으로 지고 죽을 때만이 폭포같이 제 가슴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분께 드리는 고백, 김준호)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부활절 4주

시편: 45장

후렴: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리로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위엄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오른손이 찬란한 위세를 떨치소서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엄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찌어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찌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찌라

그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하리로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되어 가는도다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고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의 뒤를 이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케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리로다)

성경말씀: 잠언 23 장 15~19

내 아들이야,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이,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중보기도:

모든 성도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주님의 청지기로서 뛰어난 근면성과
절약 정신으로 얻은 부를 공공의 선을 실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선용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제 가슴에서 자비의 샘이 터져 강이 되어 흐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지신 보배 가운데 자비만이 주님의 유일한 보배이시니,
앞으로 제가 구하는 것은 그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제게 주신다면,
성삼위와 전 인류와 모든 영혼들에게
참 평화와 강이 흐를 것을 믿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저를 몇 날 더 놓아 두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님 의지하겠나이다.
겸손히 주를 섬기고, 주님께 제 생명 받들어 올려야겠고, 누구나 사랑해야겠나이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부활절 4주

시편: 49장 13~20절

후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도다)

그들의 이 행위는 그들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그들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이나 소가 끌려가 죽고 말듯이
죽음에 몰려 저승으로 곧장 가리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리다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숨을 구하여
죽음의 구렁에서 건져주시리라
올바른 자가 그들을 다스릴지니
아침에 그 모습 사라지고 영원히 저승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찌어다
저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찌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토록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짐승 같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도다)

성경말씀: 빌립보서 1 장 27~28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중보기도:

보호자이신 주님,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살피 주시고, 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오늘의 묵상 글:

성경 말씀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요한복음 16장 7절)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떠나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분께서 알려주신 말씀, 김준호)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부활절 4주

시편: 119장 105~112절

후렴: (주의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이 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나이다
내가 맹세하고 실천하려하나니
주의 의로운 법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여, 구하오니 내 입의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험에 놓여 있으니
주의 법은 잊지 않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니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았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유산을 삼았으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이 되나이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11 장 10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니라.

중보기도:

이 땅의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슬한 난관에 부딪혀 패배주의와 상처로 가득 찬 청년 세대들이 복음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직 평화의 열쇠는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주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것뿐입니다.
이는 주님의 품에만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서원 속에 내 전 존재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서원 속에 깃들여 있는 신비를 주시해 보십시오.

삼대서원(복음삼덕)의 신비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주시는 신비이고, 천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몸 속에는 없습니다.

정결을 지키다는 것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정결을 지켜야 사랑이 됩니다.

영계(靈界)에 있어서 깨끗함이란 사랑의 완성이고, 덕의 완성입니다.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부활절 4주

시편: 72장 9~20절

후렴: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엎드려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리로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그 주는 살아 계시고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로다
그를 위한 기도가 언제나 들려지고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땅에는 곡식이 풍성하고 산등성이에까지 넘치리다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 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리니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적을 행하시는 주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리로다 아멘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6 장 20~23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욱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중보기도:

장애인들을 위한 관심이 잘 활성화되고,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병으로 자리에 눕혀 놓기도 합니다.
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참 사랑입니다.
참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보답할 마음이 간절한 데서만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되면, 그 형상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제 안에 없으므로 주님이 낙심하십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